

# 장성-산림청 '축령산' 발전 위해 힘 모은다

### 김재현 산림청장 장성 방문...노령산맥권 지역발전 모색 간담회 개최 2022년까지 90억원 투입...국유림 내 산림 치유시설 공간 확충 계획



장성군 축령산 편백숲에서 관광객들이 산림욕을 즐기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과 산림청이 '축령산'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한 '노령산맥권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장성 축령산의 발전방향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인 노령산맥권(축령산) 휴양치유벨트 사업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해 축령산 국유림 내 산림 치유시설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시설을 개선,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성군 또한 축령산 편백림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해 오고 있다. 편백

을 중심으로 축제, 체험, 관광, 상품개발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축령산 편백 특구'로 지정받는데 성공했고, 지난해부터 축령산 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축령산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장성군이 먼저 장성 노란꽃잔치와 장성호 수변길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 산림청의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과 장성군의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장성의 관광자원과 여건, 개발구상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성군과 산림청의 공동 관심사인 축령산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 양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 문제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한편, 축령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 기관은 향후 축령산에서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할 때 편백숲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가족단위 및 노약자 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축령산만의 특색있는 산림복지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가기로 했다.

그동안 축령산은 전국 최대 편백 인공조림지로서 장성군의 대표 관광지임에도

편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나 가족단위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겪어왔다.

장성군은 '장성의 보물, 축령산'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1년을 목표로 모노레일과 하늘다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이 장성군의 축령산 개발 구상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산림청과 적극 협조해 축령산의 관광 인프라와 산업을 크게 성장시켜 갈 방침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장성군과 산림청이 각종 사업추진시 서로 교류 및 연계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했으면 한다"며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의 일환인 축령산 재창조 사업 추진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주민의 요구대로 사업이 조기 착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의 미래인 축령산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힐링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해 우리 장성도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노령산맥권 사업에 적극 협력하면서, 축령산이 대한민국 대표 치유 관광지 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성=정윤섭 기자 jjs@

### 영광 드림스타트, 진로직업체험 초등생 1~5학년 아동 35명 참가

영광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부산 키자니아에서 초등 1~5학년 아동 35명과 '나의 꿈,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로직업체험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미래 직업 선택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고 꿈을 키우는 동기를 주고자 마련됐으며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그동안 꿈꿔온 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펼쳐보는 시간을 가졌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 해 구체적인 꿈과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미래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담양, 오는 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담양군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지원해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함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청년에게는 최대 4년 간 2천만원이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정규직 채용 4년 차 장기근속금의 신설로 지원기간이 확대됐다.

참여대상 기업은 담양 소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며 청년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 후 신청서류를 준비해 담양군청 품부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13개 기업 23명의 청년들이 근속장려금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지원범위가 확대된 만큼 기업과 청년이 모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lbest1@

기사제보 227-0000

## '화순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도 운영

### 바쁜 농사철 대비... 오늘부터 확대 운영

화순군이 농민의 편의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농사철을 맞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휴일에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또 평일에는 1시간 일찍 문을 연다. 임대사업소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또,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문을 연다. 군은 고가의 농기계 구매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의 기계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을 확대해 왔다. 현재 임대사업소 2곳(본소, 분소)에서

65종 380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고령농과 영농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배송서비스에서 고정식 공정선 선별기는 제외된다. 군은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11종 34대를 새로 구매해 노후 임대 농기계를 교체할 계획이다. 농기계 기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지 또는 농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 장흥, 청년일자리 창출 통합지원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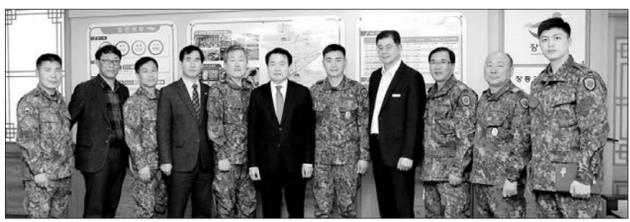
### 진로 상담·취업알선 등

장흥군은 최근 육군 제8539-3대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청년 일자리정책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흥군과 군부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 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 경력 개발, 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장흥군은 전역예정자 및 예비군 취업 희망자에게 구인·구직 자료 뿐만 아니라 각종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정보를



장흥군은 최근 육군 제8539-3대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 제공

제공하기로 했다. 진로 및 취업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가한 이대양 3대대장(중령)은 "취업과 경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상호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직은 아이를 가슴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문만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금방이라도 '엄마' 하며 아이가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낮이 나간 채 몇 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를 잃는다는 건 모두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종아동 관련정보 및 제보는 국번없이 18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실종아동전문기관(www.missingchild.or.kr)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www.sale182.go.kr)에서 정보열람 및 제보 가능

전남도민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